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에 대한 고찰

박종관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제1저자)

구영산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분석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틀을 제시하여 분명한 단절성을 보였다.¹⁾ 반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관련을 맺으면서도, 각 세부 영역별 내용 체계의 기술을 좀 더 체계화하고 상세화하여 발전된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²⁾ 이는 국어과 내부에서 세부 영역 설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어과의 각 영역이 국어교육 안에서 교육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탐구해 온

-
- 1) 김창원(2016)에서 밝히고 있듯,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총론 팀의 일반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대해 정혜승(2016)에서는 2007 개정, 2009 개정의 내용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온 ‘맥락’이 2015 개정의 내용 체계상에서 고려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2) 예컨대,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국어사전과 관련하여 2015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군에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활용’이라고 기술되었던 것이, 2022 개정에서는 ‘국어사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로 기술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활동이 ‘문제 해결’의 성격을 지녀야 함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2015 개정과 2022 개정 내용 체계 간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별도 연구가 요청된다.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의 변화보다 더 두드러지는 점은 ‘매체’ 영역이 새로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매체’ 또는 ‘매체 언어’는 국어과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언어 양식의 일환으로 다른 영역에 반영되어 왔다(구본관, 2016: 104). 따라서 매체 영역의 신설은 괄목할 만한 사건이고 눈여겨보아야 할 사안이다. 세부 영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국어과 교육의 실행 양상이 달라지기에 세부 영역의 설정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고, 전통적인 세부 영역 간 일종의 ‘경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국어교육의 안팎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세부 영역의 변화는 어느 정도 국어과 교육의 실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매체 및 매체 언어에 대한 논의가 국어교육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전후로 하여 국어교육에서 매체 및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³⁾ 비록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획된 ‘매체 언어’ 과목이 교과서 개발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곧바로 착수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과목이 사라지게 되었으나,⁴⁾ 매체 및 매체 언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

3) 물론 정현선(2005: 314)에서 언급하였듯, ‘매체언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이미 김대행(1998)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최미숙(2007: 74)에서도 국어교육에서 매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10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매체 및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비롯된 시기는 7차 교육과정 전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선택 과목으로서 ‘매체 언어’가 개설되었다가 2009 개정 때 폐지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매체 및 매체 언어를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 개정이 고시된 직후의 논의로 김대희(2010), 박인기(2010), 이지영(2010), 최규홍(2010), 최미숙(2010), 최숙기(2010) 등을 찾아볼 수 있다.

4) 교육과정사(史)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이 사건은 구영산(2011)에서 자세히 추적된 바 있다.

진 것은 아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매체 언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담고 있는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심화·발전 시킨 과목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20).”라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⁵⁾ 즉,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은 국어과 모든 영역에 많은 적든 수록되어 있던 것이고, 실제로 2007 개정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관련 내용이 꾸준히 다루어져 온 것이다.⁶⁾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영역을 왜 신설 하였으며, 국어과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주체가 살펴야 할 주안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매체 영역의 신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개발 중에 개발자 간 숏한 논의가 오고 갔겠으나, 결국 국어과 교육과정이 국어교육의 실천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는 문서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 주체가 내린 해석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의 신설이 가지는 의미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영역의 신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 개

5) 이러한 관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승되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6) 김창원(2016: 26)에서 ‘매체’를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 성취기준을 같은 교육과정 내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 그리고 매체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 성취기준을 같은 교육과정 내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비교·분석해 보는 이유는 해당 영역 교육 내용이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될 만큼의 특수성을 지녔는지 알아보기 위한 데에 있다. 국어교육의 세부 영역은 국어 능력을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능력으로 수렴되는 세부 능력이라는 점에서 영역들 간에는 연계의 지점이 존재하지만 각 영역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특수성도 지닌다. 따라서 연계성만큼이나 특수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은 ‘매체’라는 영역이 신설된 이후의 영역 체계 안에서 성취기준들 간의 차별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은 ‘매체’ 영역이 설정되기 전의 체계 안의 교육 내용이라는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자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는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이 다른 영역 성취기준과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후자를 통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매체’ 영역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나 매체 교육과 관련지어 함의하는 교육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명시적으로 ‘매체’ 영역을 따로 두지는 않았으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성취기준, 즉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 신설과 관련한 해설을 참조하면 “‘매체’는 신설한 영역으로, 기존 영역에 부분적으로 반영해 온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수정·보완하되,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 요소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교육부, 2022: 3-4).”라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체 영역의 신설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매체 교육 내용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 영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성취기준이 조정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성취기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랐다. 성취기준은 목표로 삼는 학습자의 사고 및 행동의 속성을 진술한 문장이다. 이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요소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이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영역별 심지어 한 영역 안에서도 학습 내용의 특성상 모든 성취기준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개별 성취기준에 따라 기술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취기준 진술문 안에는 교육 내지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사고 및 행동과 그 사고 및 행동의 대상 또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9국06-01]의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라는 성취기준은 ‘비교’라는 사고 및 행동 부분과 ‘대중매체,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이라는 그 대상 또는 내용이 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성취기준을 두 부분으로 분석하여 각각을 서로 비교하였다. 2인의 공동 연구자가 각각 분석한 결과는 함께 교차 검토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고 최종 결과를 논문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범위는 공통 교육과정인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공통국어1’ 및 ‘공통국어2’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정규 국어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학습할 교육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⁷⁾ 이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으로 ‘문학과 영상’, ‘융합 선택 과목’으로 ‘매체 의사소통’이 있으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예컨대 문법 영역의 경우 개별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어과의 모든 영역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이해하거나 매체 자료로써 표현하는 맥락에서 매체 자료에 포함된 언어 표현을 점검할 때 문법 영역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비단 매체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III.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의 순으로 제시한다.

1. 초등학교 1~2학년군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되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다만,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본 연구가 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화 과목 즉, 2015 개정의 ‘언어와 매체’와 2022 개정의 ‘매체 의사소통’ 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추후 심화 과목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표 1〉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 비교

2022 개정 타 영역	2022 개정 매체 영역	2015 개정 타 영역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거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6-01) 일상의 다양한 매체와 매체 자료에 흥미를 가진다.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거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3-02) 쓰기에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거 쓰는 태도를 지닌다.
(2국04-03) 문장과 문장 부호를 알맞게 쓰고 한글에 호기심을 가진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2국05-01) 말놀이, 낭송 등을 통해 말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2국05-04)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2국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2국03-02) 쓰기에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6-02) 일상의 경험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4)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쓴 글을 함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국05-03) 작품 속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여 시, 노래, 이야기, 그림 등으로 표현한다.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기초 문식성을 길러야 하는 발달 단계의 특성상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 세부 영역 간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 상당히 존재한다. 가령, 한글 학습의 경우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영역에서도 다루어져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통합적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러한 통합적 성격은 2015 개정, 2022 개정 모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내용의 특성상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 문자도 매체의 일종으로 본다면, 성취기준 [2국06-01]은 읽기, 쓰기, 문법 영역과 모두 관련된다. 노래, 이야기, 말놀이, 낭송 등을

매체 자료로 본다면, 문학 영역과도 관련된다.⁸⁾

매체 영역의 신설로 돋보이는 성취기준은 [2국06-02]이다. 2015 개정의 관련 성취기준과 비교해 보면, 2022 개정에서 매체 영역이 신설되면서 ‘그림’이라는 매체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예컨대 ‘그림일기’와 같은 양식은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학습자가 글과 그림을 결합하는 과정에 대해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은 문자를 익히기 전 학습자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그림과 글을 결합하는 경험 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교육적 경험으로 학습자에게 존 재하는지 등이 초등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1~2학년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지점은 매체와 매체 자료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2국06-01]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에서 ‘매체’와 ‘매체 자료’의 개념을 예시로써 설명하고 있다.⁹⁾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이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어떻게 작용하며,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

8)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 문단에서의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한 판단에 대해 설명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를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으로 정의하고, ‘책, TV,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인터넷’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매체의 정의에 따르면, 문자 또한 인간이 발명한 것으로서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그림책, 만화, 뉴스, 광고,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 매체 자료의 예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로 제시된 매체 자료에 노래, 이야기, 말놀이, 낭송 등이 담길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이루는 요소로서 이들을 다룰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체 자료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9)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체란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으로, 책, TV,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인터넷 등이 이에 속하며, 매체 자료에는 그림책, 만화, 뉴스, 광고,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있다(교육부, 2022: 19).”

동안 ‘매체’라는 개념이 국어교육학 안에서 모호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와 ‘매체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정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매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성격의 것이면서도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 해설에 기술되어 있어, ‘매체’와 ‘매체 자료’라는 개념을 국어과 과목 전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심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2. 초등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¹⁰⁾

<표 2>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성취기준 비교

2022 개정 타 영역	2022 개정 매체 영역	2015 개정 타 영역
(4국01-05)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4국06-01)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택한다.	(6국01-04) 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4국02-05) 글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판단한다.		
(4국01-05) 목적과 주제에 알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4국06-02) 매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발표 자료를 만든다.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초등학교 3~4학년군에 들어서면, 국어과 세부 영역 간 교육 내용의 특

10) 표에서 빗금으로 처리된 칸은 관련 성취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수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반면에 매체 영역의 특수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 [4국06-01]과 [4국06-02]는 2022 개정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4국01-05]와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4국02-05]와 긴밀하게 관련된다.¹¹⁾ 발표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후 전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표 준비를 수집한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일도 수반된다. 따라서 [4국06-01]과 [4국06-02]는 발표라는 담화를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활동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계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체 영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수집 과정을 특별히 성취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자료 수집 과정이 다른 자료 수집 과정과 매우 다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교육 내용에서 부각되어야 매체 영역의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서 성취기준 해설을 검토하면, 결국 성취기준 해설에서 ‘인터넷 접속 방법,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 방법’만이 매체 영역의 독자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¹²⁾ 그러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즉 시공간에 구애

11) 이는 다음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도 명시적으로 기술된 사항이다. “또한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목적과 주제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4국01-05])과도 연계하여 발표 자료의 준비, 제작, 발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도할 수도 있다(교육부, 2022: 29).”

12) 해당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28-29). “[4국06-01]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교과 학습 맥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때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지정된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기, 다양한 자료 훑어보기, 자료의 내용 파악하기, 유용한 자료 선택하기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접속 방법,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 방법, 목적에 맞는 정보 선택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받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스마트 기기, 사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일상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접속 방법’도 불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유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성취기준은 ‘비선형적 자료의 탐색 방법’만 남게 된다. 따라서 [4국06-01]과 [4국06-02]는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반면,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매체 영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성취기준은 [4국06-03]이다. 해당 성취기준은 매체 소통 윤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성취기준 해설에서 ‘초상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초상권 침해는 복합 양식성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 면밀한 논의가 요청된다. 만일 단편적인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굳이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5~6학년군 성취기준을 제시한 까닭은 발표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2015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5 개정의 성취기준 [6국01-05]는 2022 개정의 매체 성취

13)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학습자들이 1-2학년군에서 지정된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학습자들의 문식 환경이 전면 디지털화되고, 보유 기기나 디지털 역량 등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등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4국06-01]의 교육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에 조성된 학습 공간에 접속하기 위해서 접속 방법을 배워야 할 정도라면, 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용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 공간으로 학습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수업 절차상 꼭 필요한 단계이지만, 이것이 교육 내용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준 [4국06-02]와 유사하다. 매체 영역이 신설되면서, 목적, 주제, 자료 정리, 자신감 등 듣기·말하기 영역의 다른 학습 요소를 부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초등학교 5~6학년군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준 비교

2022 개정 타 영역	2022 개정 매체 영역	2015 개정 타 영역
(6국01-05) 자료를 선별하여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6국06-01) 정보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는다.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6국03-02)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	(6국06-02)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6국06-03)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6국04-06) 글과 담화에 쓰인 단어 및 문장, 띄어쓰기를 민감하게 살펴 바르게 고치는 태도를 지닌다.	(6국06-04) 자신의 매체 이용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6국02-06)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6국05-06)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6국03-06)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6국04-06)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매체 영역의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은 정보 검색 및 선별, 정보의 신뢰성 평가, 복합양식 자료 제작 및 공유, 매체 이용에 대한 성찰로 요약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타 영역 5~6학년군 성취기준과 비교한 결과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만이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위의 표에 드러난 바와 같이 다루어지는 언어 자료가 매체라는 것만을 제외하면 언어 활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6국06-01]은 자료 선별, [6국06-02]는 텍스트의 신뢰성 평가, [6국06-04]는 언어 활동의 성찰 측면에서 타 영역의 성취기준들과 일맥상통하는 유사한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6국06-04]는 ‘매체 이용 양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성취기준이 의도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영역에서 추구하는 ‘매체 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 조작을 의미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은 추정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언어 활동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성찰과 비교하여 그만의 변별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6국06-03]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타 영역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일 정도로 모든 성취기준에서 매체 자료를 명시적으로 그것의 주된 언어 자료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또는 매체 자료를 다룬다는 것만으로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매체 영역의 특수성을 드러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중학교 1~3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기준 비교

2022 개정 타 영역	2022 개정 매체 영역	2015 개정 타 영역
	(9국06-0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9국06-02)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	
	(9국06-03)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9국03-09)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인 필자로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윤리적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9국01-02)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2-04)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9국06-05)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을 이해하고 광고나 홍보물을 분석한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4-08) 자신과 주변의 다양한 국어 실천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자아 및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9국05-02)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9국05-01)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9국05-04)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9국06-06)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공정성을 분석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매체 영역의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은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 비교, 상호 작용적 매체 분석, 영상 매체 자료 제작 및 공유,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 성찰, 재현 방식에 입각한 광고나 홍보물 분석, 사회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매체 자료의 공정성 분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타 영역 1~3학년군 성취기준과 비교한 결과 일부 성취기준 예를 들어, [9국06-01]의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9국06-02]의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는 2022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타 영역에서 유사한 성취기준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유가 위의 두 성취기준이 교육 내용으로서 변별성이 있다기보다, 보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른 성취기준에 비하여 구체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취기준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정 담화 유형을,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SNS나 누리집과 같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를 특정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또 다른 성취기준으로 [9국06-06]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성취기준의 설정 취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해설을 참조하면, 매체 자료의 공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¹⁵⁾ 그런데 이 활동의 예로 제시된 것들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해

14) 해당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57). “[9국06-02] 이 성취기준은 상호 작용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생각, 의견, 관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며, 학교나 학급의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이처럼 소통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 자신의 소통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록 한다.”

15) 해당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57). “[9국06-06] 이 성취기준은 매체

당 성취기준의 주요 핵심 개념인 ‘사회·문화적 맥락’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동시에 ‘공정성’과의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외 다른 성취기준은 타 영역의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의 속성 차원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9국06-04]의 경우 매체를 포함한 표현 국면에서의 성찰과 윤리, [9국06-05]의 경우 언어 자료의 재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관점에서 타 영역의 성취기준과 연계되는 측면이 강하다.

다른 한편, [9국06-03]의 경우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와 같이 진술 방식이 다른 성취기준에 비해 포괄적이어서 이와 유사성을 띠는 교육 내용의 성취기준을 타 영역이나 이전 교육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취기준의 구체화 수준에서 볼 때 앞서와 상반되게 상대적 추상도가 높음으로 인해 해당 성취기준의 의미 해석이 보다 열려 있다. 그 과정에서 매체 영역 성취기준으로서의 특수성은 덜 띠게 되는 반면,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은 보다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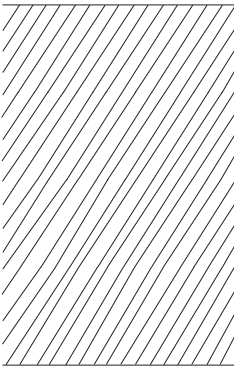
5. 고등학교 1학년

2022 개정의 고등학교 ‘공통국어’(1, 2)와 2015 개정 ‘국어’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료를 공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에 따라 과도하게 반복, 과장, 축소되어 전달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매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사건이나 쟁점을 다루는 매체 자료를 비교하고, 그 매체 자료가 제작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그리고 매체 자료가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양한 주장을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입장을 지닌 주장을 전달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피상적인 사실 전달에 그쳐 특정한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간과하거나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표 5〉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성취기준 비교

2022 개정 타 영역 성취기준	2022 개정 매체 영역	2015 개정 성취기준
(10공국1-01-02)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토론한다.		
(10공국1-02-01)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한다.	(10공국1-06-01)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10공국1-04-01)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10공국1-03-01) 내용 전개와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10공국2-02-01)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에 내재된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공국2-02-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며 읽기 목적에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0공국2-06-01)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관점을 담아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한다.	(10국05-05)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10공국2-03-02) 논증 요소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		
(10공국2-05-02)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하는 태도를 지닌다.		

<p>[10공국2-01-03] 사회적 소통 과정에서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한다.</p>	<p>[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p>	
<p>[10공국2-02-03]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p>		
<p>[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한다.</p>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취기준의 진술이 좀 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국어 1, 2의 매체 영역 성취기준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표 5>를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성취기준 [10공국1-06-01]은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와 ‘비판적 분석’이라는 두 학습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비판적 분석’이라는 사고 과정은 좀 더 구체화된 사고 과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듣기·말하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논증에 대한 타당성 판단하기’로써 비판적 사고를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영역에서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분석 대상이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라는 학습 요소도 매체 영역의 특성을 부각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서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 [10공국1-04-01]은 ‘다변화한 언어 공동체’라는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문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오던 교육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에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주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매체 영역의 특성이 좀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주제를 전달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학습자들이 좀 더 주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공국1-06-01]의 연계성이 다소 강하게 느껴져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10공국1-06-02]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공국1-06-02]는 매체 자료의 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매체를 중심에 두고 언어 현상을 관찰할 때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10공국1-06-01]은 [10공국1-06-02]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매체 영역 신설의 의의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10공국2-06-01]은 [10공국1-06-01]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다. 이 성취기준의 학습 요소는 ‘매체 비평’, ‘비판적 수용’, ‘매체 비평 자료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수용’은 앞서 ‘비판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인 용어으로써 기술될 필요가 있다.

[10공국2-06-01]에서 좀 더 우려되는 지점은 ‘비평’을 다룬다는 점이다. ‘비평’은 문학 교육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 온 학습 요소이다. 따라서 비평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상당히 있으리라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두 성취기준의 연계가 한 성취기준을 다른 성취기준으로 치환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학 교육에서 다루는 매체 요소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매체 비평의 특성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논의가 요구된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비평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매체 영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성취기준은 [10공국2-06-02]이다. 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2015 개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22 개정 내에서는 ‘소통 문화’라는 학습 요소와 관련하여, 듣기·말하기, 읽기, 문법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매체의 변화’라는 학

습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교육 내용이 구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매체 영역의 연계성과 특수성이 균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매체 영역의 신설이 국어과 교육의 실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 성취기준을 2022 개정 내 타 영역 성취기준 및 2015 개정 성취기준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먼저,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의 대부분이 다른 영역과 연계성이 매우 강함을 파악하였다. 이는 국어과의 모든 영역에서 매체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고, 매체 언어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줄곧 고민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러한 연계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언어 활동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타 영역 성취기준과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계성이 있다(유형①).¹⁶⁾ 다음으로 매체 영역 성취기준이 포괄하는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술되어 발생하는 연계성이 있다(유형②). 마지막으로 다른 상위의 언어 활동의 일부 단계로 포함될 수 있는 언어 활동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여 발생하는 연계성이 있다(유형③). 영역 간 통합적 성격이 강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을 제외하고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 중 연계성이 강한 성취기준을 선별하여 구분하면 <표 6>과 같다.

16) 이는 비단 매체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어교육의 세부 영역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이어 제언에서 좀 더 논의한다.

〈표 6〉 연계성의 유형에 따른 매체 영역 성취기준의 구분

유형①	(6국06-02)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6국06-04) 자신의 매체 이용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9국06-05)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을 이해하고 광고나 홍보물을 분석한다. (10공국1-06-01)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0공국2-06-01)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관점을 담아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한다.
유형②	(6국06-03)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9국06-03)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유형③	(4국06-01)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택한다. (4국06-02) 매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발표 자료를 만든다. (6국06-01) 정보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는다.

성취기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 수준으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수업을 설계할 때, 매체 영역과 타 영역 간 충돌이 나 모순됨이 없이 통합적인 단원 구성, 수업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유형①’로 분류된 매체 영역 성취기준은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고’ 등 타 영역의 학습 요소에도 내재한 언어 활동의 본질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계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유형②’는 매체 자료 제작 및 공유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성취기준으로서, 타 영역 성취기준과 연계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③’은 자료 수집 및 제작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상위 목적의 담화 유형을 수행하기 위한 하위 활동으로서 타 영역 성취기준과 연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타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시켜 온 매체 및 매체 언어 관련 교육 내용이 이미 존

재하므로, 매체 영역 신설이 실제로 교수·학습 내용에 변화를 크게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성취기준이 매체 영역 신설의 의의를 좀 더 잘 드러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성취기준을 선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9국06-0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9국06-02]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

[9국06-06]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공정성을 분석한다.

[10공국2-06-02] 매체의 변화가 소통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위의 다섯 개의 성취기준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 요소를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고 기술한 것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 국어교육학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 영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위의 성취기준은 타 영역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성취기준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4국06-03]은 성취기준 해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즉, 국어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학습 요소들을 현대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맥락화하여 다루어 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9국06-01]과 [9국06-02]는 특정 매체를 명시함으로써 성취 기준의 구체화 수준이 매우 높다. 매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원리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성취기준이 추상화되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수준에서 특정 매체가 선택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9국06-06]에서 주요 학습 요소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공정성’ 간의 논리적 연결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체화 방안의 논의가 요청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매체 영역의 신설로써, 기존에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던 매체 및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리되어 정리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와 같이 매체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가 수월해지고 활발해지리라 기대하며, 교과서 개발이나 수업 설계 시 매체에 대한 고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어과 세부 영역 구분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 예측된다.¹⁷⁾ 매체 영역의 신설을 그간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가 강조되어 오면서 논의가 축적되어 온 결실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체 영역의 신설은 영역 간 연계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각 세부 영역은 어떠한 위상을 점하며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17) 한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새로이 설정된 매체 영역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 점에 본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세부 영역 구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어과의 세부 영역 구분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세부 영역 간 융합의 지점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국어교육학계가 발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부 영역의 설정 문제를 국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소모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설정된 세부 영역 간의 융합적 측면에서 세부 영역의 구분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 국어교육 내용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체 영역의 신설을 계기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세부 영역의 설정과 위상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특수성이 발현되는 동시에 상호 보완 가능한 연계성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펼쳐질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1.31. 투고되었으며, 2023.02.12. 심사가 시작되어 2023.03.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제2007-79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본관(2016),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1), 89-133.
- 구영산(2011), 「국어교육 정책 종결 과정에서 형성된 고교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의 의미 - ‘매체 언어’ 과목의 폐지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42, 241-279.
-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7-44.
- 김대희(2010),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7, 105-135.
- 김창원(2016),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1), 6-35.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137-158.
- 이지영(2010), 「초등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41-73.
- 정현선(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8, 307-337.
- 정혜승(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4(3), 29-50.
- 최규홍(2010), 「초등학교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42, 107-132.
- 최미숙(2007),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28, 73-101.
- 최미숙(2010), 「고등학교 국어 선택과목과 매체언어 교육」, 『국어교육』 131, 255-279.
- 최숙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 언어 이해 교육」, 『청람어문교육』 42, 69-106.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매체 영역에 대한 고찰

박종관·구영산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매체 영역의 의의를 살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2022 개정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을 같은 교육과정의 타 영역 성취기준 및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매체 영역의 의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으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성취기준의 의미를 분석하는 동시에, 매체 영역의 신설 전후로 그것이 국어과 교육과정 내 타 영역의 성취기준과 어떻게 차별화되면서도 연계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매체 영역 성취기준을 연계성이 두드러지는 것과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연계성이 두드러지는 성취 기준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고,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성취기준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매체 영역, 매체 교육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 Section of the 2022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Park Jongkwan · Goo Young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newly established media section within the 2022 Korean language curriculum(KLC). To this end,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KLC media section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sections of the same curriculum and of the 2015 KLC. In order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 section, the meaning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was analyzed. Moreover, at the same time, there was also an identification of how,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a section, the aforementioned meaning differed and connected with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other sections within the KLC was identified. As a result,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media sectio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criteria of connectivity and differentiation. The achievement standards with highly connectivity were subdivided into three typ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those with high levels of differentiation.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orean Language Curriculum, Media Section, Media Education